

# 전국 전통발효식품 제조기업 지원

## 순창군, 올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20곳 지원

순창군이 보유한 종균과 발효기술이 전국 식품관련 기업에 보급되면서 순창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 순창군 재단법인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대표이사 황숙주, 이하 진흥원)은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으로 기술보급 지원기업에 선정된 전통발효식품 제조기업 15곳과 지난 1월 협약을 맺고 종균 보급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5개 업체가 선정되며 오는 3월 협약을 맺고

기술지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6곳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0곳, 2019년에는 9곳 그리고 올해 20곳의 식품제조기업을 지원하게 됐다. 올해 맞춤형 종균공급과 기술지원을 받게되는 제조기업은 장류제조기업이 16곳, 발효식초 제조기업 4곳 등 총 20곳이다. 선정된 기업체는 종균보급기관인 진흥원 측과 종균보급 및 기술지

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균선정 및 발효적성평가, 시제품제조 단계를 거쳐 상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종균 및 기술지원에 따른 관련 기업체들의 성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기업체 조사 결과 총매출이 기술지원 전후로 약 5% 성장(250억 규모)했으며, 종균보급과 현장 종균적용을 통하여 개발한 제품의 직접 매출액도 40억원에 이르며 전년대비 22.6%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참여기업의 신규고용도 2018년에는 8명, 2019년에는 18명으로 증가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조성호 팀장은 "전국 약 6,000여 발효식품제조기업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순창종균을 공급하기 위해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를 건립중이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완공하여 정상 운영을 통해 발효식품산업의 기반인 제조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효 미생물의 본고장인 순창군에서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4만 균주의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효식품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미생물종자코딩 및 반려동물 펫푸드, 유기농 친환경 농업 미생물 분야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보유한 종균과 발효기술이 전국 식품관련 기업에 보급되고 있다.

# 저소득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수 지급

## 임실군, 코로나19 여파 사업 잠정 중단... 2월분 주기로

임실군이 저소득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시 중인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2월분 보수를 지급한다.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중단된 노인 일자리의 참여자에 대해 2월분 보수를 5일까지 지급한다.군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1,759명으로 임실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의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그러나 수행기관별로 사업 중단일 전달까지 최대 100%까지 노인 일자리 활동을 실시, 보수를 지급한다.

각 수행기관은 2월 활동하였던 참여

자에 대한 보수를 활동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추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신속히 활동 재개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큰 어르신들을 위해 전라북도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일자리 등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 중이다.중단 기간 중 활동비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활동 시간을 연장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심 민 군수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일자리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시설채소 변온 및 지온관리 등 시설채소 농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 남원 시설채소 환경관리 현장지도 강화

## 기상이변으로 병해충 증가 우려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가 시설채소 변온 및 지온관리 등 시설채소 농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관리에 있어 해뜨기 전 1~2시간 정도 예비기온을 하고, 광선이 충분하면 광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온을 유지해 해가 진 후 4~6시간 정도는 동화 산물의 전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전류가 끝난 후 부터는 호흡에 의한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낮은 기온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지온이 낮으면 뿌리의 신장과 활성이 떨어져 토양 미

생물의 활동이 억제되어 결국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불량해지므로 작물별 적정 지온범위에 있도록 지온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겨울이 따뜻한 반면 잦은 강우에 일조량은 평년보다도 부족해 꽃 곰팡이 및 잿빛 곰팡이 등 병해충이 전년대비 증가할 수 있어 속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수광량 개선 및 환기를 통한 온습도 조절의 환경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힘써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담당자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농작물의 품질 저하와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센터에서는 시설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속적인 현장 영농지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전문가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불안감과 약간의 스트레스는 자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된다면 정신의학적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격려자, 능동감시자와 같이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되어 격리된 생활을 할 경우 불안이나 무기력, 불면, 경계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해지게 된다면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동원해 상담 후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병원 및 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의회, 임사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3일 제235회 임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명시?사과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일반인들을 심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와중에 열리는 의회인 만큼, 집행부 실과 소장의 참석을 제한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윤지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집행부에 금년에 계획한 각종사업이 조기 착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불철 수발 방지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코로나19로 지역상권 살리기 나서

## '외식의 날' 매주 수요일·금요일 확대 운영

남원시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근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 운영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휴무

하는 '외식의 날'을 공직자들이 솔선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심리 확대 및 구매활동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되어 어려움을 함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남원시청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200여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

주 수?금요일로 '외식의 날'이 확대 운영되면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등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직자들이 미려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외식의 날을 확대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영농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정상 운영

순창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들의 농기계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토요일 정상 근무를 추진해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농가에서는 필요시 전화로 사전 예

약 후 농기계 임대 가능하며, 토요일에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본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민들의 작업여건을 감안해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소에는 농기계 및 작업기

55기종 718대를 확보, 임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5,936건을 임대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특목해 봤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임대농기계를 내 기계처럼 아껴 써주길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도한 농작업과 아간작업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